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송고한 애민헌신의 한 평생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차넘치고있다.

아름다운 거리와 현대적인 창조물들, 사회주의전야와 백과가 무르익은 과원들, 최첨단을 통과하는 과학기술성공들, 강위력한 불패의 군력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한 나라를 이런 튼튼한 강국의 반석우에 올려세우는 력사적인 위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책임지는 위대한 예측자, 독재의 위인만이 실현할수 있다.

인류정지사에 전무후무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중의 하나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탁월한 선군경도로 20세기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악하고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저리시였지만 그 누가 내 마음 몰라봐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부르시며 국력강화의 길우에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끝없이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은 누구나 걸수 없는 사생결단의 길이었고 국헌의 계선들을 련이어 돌파한 괴뢰된 공적전이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오늘 공화국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문명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것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한몸을 초월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몰아오시고 21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퍼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온 나라에 첨단돌파

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인민을 이처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며 인민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으시고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하신 교시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있다.

내가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입니다.

하루를 열흘맛잡이로 일을 하여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입니다.

1초를 1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쪼개가며 일하시면서도 시간이 짧으랴 1초를 1시간으로 늘이지 못하는것을 두고 그리도 안타까

와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강도의 빨재산식 강행군, 눈보라강행군, 삼복칠강행군, 폭우강행군, 철야강행군길을 걸으시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였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른 새벽에도, 눈비가 오는 곳은 날 가림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주제100(2011)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은 평양8월풀가공공장이였다.

8월풀을 가지고 단맛감을 생산하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장비한 설비들의 기술특성과 성능,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의 로동계급과 련관부문 일꾼들이 짧은 시간에 공장을 현대화하여 짧은 맛감을 대량생산해낼수 있는 튼

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이 현대화된 결과 지난 시기 쓴맛과 짠 맛을 내던 8월풀당이 이제는 사랑의 고유한 맛을 내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에 첨단기술을 받아들일으로써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단맛감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식료공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우리 인민들의 단맛감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평양8월풀가공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나아가 갈 길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것은

당국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단맛감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

평양8월풀가공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는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와 질좋은 단맛감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짚직장도 함께 만수대지구건설장도 돌아보시였다.

겉쌓이는 피로도 마다하지 않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는 하루를 깡그리 다 바치신 장군님의 심중에 고대된것은 하루빨리 인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이었다.

그이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였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지주들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걸으신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루하루는 이렇듯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것으로 이어졌다.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인민의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키신 장군님의 로고속에 주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이 펼쳐질수 있었다.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는 광명성제염소, 원산제염소, 애대청년제염소와 같은 염전기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난시련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초불과 같이 깡그리 태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인민에게는 따뜻한 봄빛이언정 넘쳐나야 하고 인민은 언제나 행복만을 누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이었다.

언제인가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를 들으시며 시련에 찌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으시던 그이께서는 인생이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다른것이 아니다, 조국의 흥성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어 길이 빛나고있다.

우리 서로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일어나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야 한다고 하시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기적과 위훈창조제로 불러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뜻과 사상은 승리의 기치되어 전체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혔고 이 조선을 이끄는 역세고 줄기찬 항도의 힘은 비약의 나래펴고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비상한 진군속도를 낳았다.

지난 7년간은 윤희관철전, 거창한 창조대전으로 들끓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다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훌륭히 일떠선 창조물들을 대하실 때마다, 우리 공화국의 국력이 만방에 과시될 때마다 절절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흘러온 7년세월 조국은 더욱 강대해졌고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꽃피었다.

한해한해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을 꽃피우는 5천년민족사의 대경사, 대사변들로 짝 채우시고 방방곡곡에 인민을 위한 만복의 열매들을 주렁지루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해 폭풍처럼 달려왔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찬란하고 이 땅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태양의 미소와 숨결로 활력에 넘쳐났다.

세세년전 주체강국의 세월은 즐거차게 흐르고 대대손손 이 땅의 모든 승리와 영광속에 위대한 태양은 영원히 찬란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겨울이 오고 이미 겨울도 내리었다. 거기마다에서는 두툼한 솜옷을 떨쳐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몇년전에 비해 솜옷, 외투의 모양과 색깔은 더욱 다양해졌고 질도 올라간것이 대목 알린다. 한겨울의 추위를 막아주는 솜옷들을 보느라 한벌의 솜옷에 대한 생각이 가슴이 뭉클해진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입으신 야전솜옷이다. 지금도 금수산태양궁전에 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사적렬차안에는 그 야전솜옷이 정히 보존되어있다. 조국방안을 주름잡으시며 렬차정무원에서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잠간 자리를 뜨신것만 같아 누구나 야전솜옷을 보며 가슴을 저민다. 설이 닳고 색바랜 얇은 솜옷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때 그이께서는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법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 어떤 렬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하시였다.

솜옷도 오래 입으면 얇아져 추위를 막지 못한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야전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을 지키고 사랑해야 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영원한 귀감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시던 그이의 애국헌신의 렬사가 깃들여있는 선군장정의 증언물이다.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자신의 온넛과 열정을 바치시며 만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시던.

그이의 헌신과 로고속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렬사가 펼쳐지고 온 나라 도처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솟아나고있으며 인민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사람들은 나날이 꽃피는 행복과 더불어 야전솜옷에 깃든 만단사연을 되새기며 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 애국념을 반드시 실현할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자신께서는 야전솜옷을 입으시면서도 군인들에게는 출지 않게 두툼한 솜옷을 해입히

고영수

나라의 산과 들, 나무 한그루와 풀 한포기에도 한평생 조국을 사랑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체온과 체취가 어리여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거리와 마을로 부터 공장과 발전소 등 산업기지를, 교정들과 문화시설들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인민의 복리와 부강조국건설에 기울인 그이의 헌신의 자욱이 새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러보신 인민의 락원, 강국의 미래가 현실로 펼쳐져지고있다.

고산과수종합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 굴지의 청춘관원으로, 세포동관이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되었다. 전력, 석탄, 광물생산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평양과 신의주의 화장품공장을, 금강체육인종합스포츠, 신승식료공장에서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평양양말 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민들레학습공장, 평양강병이가공공장, 전조각지의 가방공장을 비롯한 생산기지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원산구두공장은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볍고 질좋은 신발을 만들며 대하여 가르치신대로 형태가 다양하고 가볍고 맵시있는 질좋은 구두들을 생산하고있다.

원산구두공장이 질 좋고 맵시 있는 구두를 생산하도록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보살핌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공장을 현지도하시고 인민들에게 좋은 신발이 차례지도록 하며 그것을의 기준으로 삼고 설비들을 현대화하도록 할데 대한 장군님의 유힬을 실현하도록 구체적으로 보살피주시였다.

세계전 어느날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매봉산》상표를 단 구두의 질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였고 그 이듬해 또 다시 공장을 현지도하시며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연령심리특성,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세 오늘날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섬유공업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

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지난 10월 개관을 앞둔 극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고 보니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생물림공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새창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필공장으로 개편되어 문을 열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 설

받들어 통일강국의 새 아침을 마중해 가자

조국통일사에 빛나는 크나큰 업적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그리움은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민족자주통일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영원한 통일의 태양이시다.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민족문제해결의 핵, 전민족대단결의 기초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주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 단결의 위력으로 통일운동을 전진시켜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셨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정식화,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여 민족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도 제시하시었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해 하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해가던 날날 우리 겨레 누구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우

리 민족끼리님,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자주사상과 민족대단결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 동료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현명성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리어나가게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새로운 역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로 이 땅에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를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적화해

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천출명장의 담력, 세련된 정치실력과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로 분열과 단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셨으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밝은 아침을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조국통일을 위한 헌신의 나날에

《여기서 서울까지 몇리나 됩니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신 주체63(1974)년 7월 어느날이었다.

판문점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바로 판문각 2층로대로 나오셨다.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겨레의 피라는 절규를 들으시는듯 한동안 남녘 하늘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직이 뇌이시었다.

《삼각산!》 그의 음성엔 비분에 젖어있었다.

《삼각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조용히 되뇌이시며 남쪽하늘에서 점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삼각산은 세 봉우리가 삼각형으로 솟아있다고 하여 북한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바로 그 산 밑에 서울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여기서 서울까지 몇리나 됩니까?》

한 일군이 서울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말씀올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말씀올린 일군도 결어 있던 일군들도 못박힌듯 굳어지고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물라시 물으시는것이 아니기때문이었다.

사실 판문점에 처음으로 나오시었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었다.

《그래도 판문각 로대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여기서 서울까지의 지척이라고 하시며 쌍안경으로 남녘땅을 바라보시고나서 조국을

새 해의 깊은 밤

주체65(1976)년 1월 1일이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해의 즐거운 밤을 보내고있는 11시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분의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견잡지 못했다.

《오늘도 온종일 쉬지 못하시었

다. 동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의 이 심려를 반드시 덜어드려야 합니다.》

일군들은 새해의 깊은 밤에도 나라의 분열로 하여 겪고있는 겨레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 철석의 의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창문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과업을 다음세대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교시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절절히 울리었다.

새해의 첫날 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반드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 줄은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다.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려하고계십니

다. 동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의 이 심려를 반드시 덜어드려야 합니다.》

일군들은 새해의 깊은 밤에도 나라의 분열로 하여 겪고있는 겨레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 철석의 의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창문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과업을 다음세대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그이의 교시는 일군들의 가슴속에 절절히 울리었다.

새해의 첫날 온 겨레의 통일념원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으로 사업을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반드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올 줄은 맹세로 가슴을 불태웠다.

본사기자

발전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확히 제시되어있다.

지금 북남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접촉과 대왕, 대화와 협력사업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

우리 민족끼리 이룩한 소중한 열매

고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기치이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엔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닙니다. 북남관계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선언들에는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민족자신에게 있다.

하기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민족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가져다줄수도 없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열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의 력사는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할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북과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북남합의들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실행해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위에 평화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리전북



민심에
수입수
없다

남조선에서 보수 패당의 집권시기에 감행된 온갖 불법무법적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8일 진보련대와 민주로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6개 단체의 2만여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리석기석방대회》를 열고 《사법부단 최대피해자 리석기 석방하라!》, 《박근혜 사법부단 종범 량승태를 구속하라!》고 웨치면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리석기의 석방과 당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리석기석방투쟁은 파쇼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적폐, 보수악패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서 대중적지지를 받아 《국회》에 진출하고 보수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통합진보당을 말살하기 위해 박근혜당이 대법원장 량승태를 비롯한 법조계 하수인들을 내몰아 조작한 진보정당탄압사건으로서 이를 기화로 하여 통합진보당은 강제해산당하였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은 《국정원대선개입》과 같은 비열한 음모로 《대통령》자리를 강탈한 박근혜가 과멸의 위기에 벗어나려고 조작날조한 전대비문의 폭거로서 《유신》파쇼독재의 재판이라고 할수 있다.

민의를 의해 조직된 합법적인 정당인 파쇼권력을 휘둘러 백주에 교살한 남조선 보수패당의 천인공노할 탄압만행을 두고 당시는 겨레와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민주주의를 악랄하게 교살한 《유신》독재의 잔당인 박근혜당은 집권하자마자 피비린 칼을 로골적으로 꺼내놓고 통합진보당을 《중북위헌정당》으로 몰아 탄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

으며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으로 통치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이 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의 《내란음모사건》이란것을 조작해내는 광대국을 벌였던것이다.

최근에 박근혜집권시기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모결탁하여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강제해산놀음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리석기 석방투쟁은 광범한 계층으로 확대되고있을뿐아니라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박근혜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하수인들을 내몰아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였지만 민심을 속일수는 없는것이다. 죄악은 아무때나 드러나기마련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반민주주의적이며 파쇼적인 모든 적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총열기해나서고있다.

사법적폐를 비롯하여 보수패당이 저지른 온갖 불법무법의 죄악을 말끔히 청산하고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새 세상을 세우자는것이 오늘의 초발민심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암흑시대의 유물을 없애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조각 70년을 계기로 북남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파쇼악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출판된 도서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국보법〉》에는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그 피해사태들, 개악과 폐지를 둘러싼 범리론쟁 등이 자료적으로 서술되어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최근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지금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초분로 교체된 〈정권〉이 그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그런데 하면 남조선의 민족자거원합소속 녀류인 박금란은 식민지땅에서 살관치는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통일법을 만들어 새세

상을 이루자고 호소하는 시 《〈국가보안법〉을 무덤에 묻고 통일법으로》를 창작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서고금에 없는 사상최악의 파쇼악법, 회색의 인권말살악법이다.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은 친미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파쇼적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보안법》을 조작하였다.

친일의 뿌리에 돌아간 권력대 남조선보수 《정권》은 조선의 예국자들을 무참히 유린교살한 일제의 파쇼악법을 청산하기는커녕 장장 70년동안이나 그것을 더욱 개악해가며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아왔다.

사람이 사회적존보를 위해 활동하는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회색의 인권말

살악법인 《보안법》에 의해 선진사상의 탐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이 응당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는 물론 인륜도덕과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무참히 짓밟혀왔다. 보수집권세력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러와 학살, 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부과 남의 자유로운 대외와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지배를 하는것까지 범죄시하는 《보안법》에 의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동화해와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린 오늘까지 뼈저티 살아있는것은 남조선민심에 대

러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었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존속되어온 력사자 파쇼독재의 칼날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참히 교살당하고 매국이 예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짓밟아온 피비린 범죄의 력사이다.

나라마다 법이 존재하지만 그 뿌리로 보나 무고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죄악의 기록은 보나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극악무도한 법이 아닌 《법》은 없다.

이런 회색의 악법이 보수 《정권》이 몰락하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린 오늘까지 뼈저티 살아있는것은 남조선민심에 대

한 우용이며 민족의 수취이다.

《초분정권》을 표방하는 남조선당국이 보수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보안법》에 칼을 두지 못하는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보안법》철폐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민주, 민권을 위하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민심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대로 암흑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것이다.

오영철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11일 사설을 통해 조선반도평화와 인권보장은 《보안법》폐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사회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보안법》폐지를 요구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민족의 분열과 동족대결의 종식목표로 《보안법》의 존폐여부와 긴밀히 관계

70년간 권력의 지배도구로 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보안법》에 의한 간첩조

작, 《중복》몰이, 색깔론 등 그 폐해는 막대하다고 하면서 유엔과 국제대사령도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보안법》폐지는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 조선 신문 문
《보안법》 폐지를 주장

남조선군부가 이해가 저물어가는 지금도 북남관계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대결 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5일 남조선군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본부에 참모총장들을 비롯한 군부내의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벌여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남조선군부는 《정부》의 안보전략을 뒤받침하는 기본책은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하면서 《〈한〉 반도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힘으로 담보해야 한다.》,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완화와 신뢰구축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속에서도 군본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특히 남조선군부 장관은 남북간 군사분야합의서리행을 통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보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각 군지휘관들이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갖추며 《한》미련한작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떠들었다. 같은날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 장도 년말 작전지휘관회의의 라는데 《매년에도 〈승수구전〉(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뜻)의 강한 군으로 거듭나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정책

을 군력으로 뒤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명말을 늘어놓았다.

남조선군부가 벌여놓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민족화해와 평화의 흐름에 내비치는 대결모의판으로서 반공화국적대외의 집중적표현이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은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선으로 지향되고있다.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스처보낼 일이 아니다.

얼마전 남조선 《국회》에서는 2019년도 《정부》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436억 140만US\$로 책정하였다.

특히 북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국방력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떠들면서 《한국형3축라격체계》(《결, 체, 대》, 《미사일 방어》, 《대량중장포》) 구축에 지난해보다 16.4% 늘

계개선과 조선반도정세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로 된다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번 매년도 국방예산에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제로 논란이 되어온 《한국형3축라격체계》구축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할 사실만 가지고도 남조선당국이 국방예산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 는 더욱 명백해졌다.

지난 시기 종래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일시에 팽가되고 대결국면에로 되돌아간것은 다 군비경쟁과 그로 인한 긴장격화와 관련되어있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책동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으며 속에 칼을 품은 상대와는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도모할수 없다는것은 곡절많은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관계개선을 표방하고 뒤에서는 강선을 해칠 판공을 꾸는것이아말로 동상이몽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장들은 북남관계개선에 찬서리를 몰아오는 군비경쟁과 전쟁준비책동이 어떤 과국적후파로 이어지겠는가 하는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최고 남조선에서 박근혜집권시기의 사법부통단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7월부터 검찰을 내세워 수십여명의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심화시켜 대법원인 부당한 판결로 전교조를 비법화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였으며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소송재판당시 일본전범기업들과 비밀리에 거래를 한 물적증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 범법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핵심범피자들을 구속하였다.

현재 남조선의 대법원은 법관정제위원회에서 사법부통단사건에 가담한 10여명의 현직 법관들에 대해 엄중징계조치를 취한데 이어 《여기에서 빠진 범피자들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징계할것》이라고 하면서 수사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있다 고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개혁세력들은 전 대법원장 량승태구속, 적폐판사탄핵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각

종 집회와 시위를 연이어 벌리면서 현 《당국》의 사법부통단사건수사를 지지해나서고있다.

《향승태 사법부통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 대법관들의 구속수사 및 적폐법관 탄핵과 사법부통단특별법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제징용 일본

다 아는것처럼 박근혜적폐당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모략적인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백주에 이 당소속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남조선 사법당국을 내세워 통합진보당을 《중복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시켰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악랄하게 방해해나서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보수의 결집을 노린 보수적대결기러들의 단말마적법악이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경제와 민생을 과탄시키고 부정부패만을 일삼아온자들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시대를 되살려보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그러한 놀음으로 력사의 죄인들인 보수패거리들의 가능한 처지가 달리 될수 없으며 오히려 리명박, 박근혜부역자집단, 공범자집단, 적폐집단들이 더욱 적라파격 폭로될뿐이다.

민심은 천심이며 력사가 내리는 빛은 결코 피할수 없다.

민심의 거울에 력사의 반동, 적폐세력으로 비껴진 보수패당이 민심을 거역하고 대세의 흐름에 도전할수록 저들의 비참한 자멸만을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동상이몽의 극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온 겨레의 가슴가슴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한껏 부풀게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그에 역행하는 남조선군부의 군사적대결소동에 내외의 경제심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군부내에서 《〈한〉 반도비핵화를 힘으로 담보해야 한다.》,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결너드러가 꺼리낌없이 쏟아져나온것은 그들의 속통에 아직도 동족대결의 흉심이 가득차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강력한 국방력건설》을 떠들며 국방예산을 대폭 늘인 사실도 결코

가 맞장구를 치며 《박근혜, 리명박분구속재판추진결의》이라는것을 고안해내고 여기에 손을 들어 찬성하였었다. 그러던자들이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위해 제손으로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정찰장비확보와 작전지역확장에 따른 기동능력확보, 지휘통제체계개선 등에 49억 5 000만US\$를 각각 배당하였다.

또한 미래의 전쟁환경에 대비하여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할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전쟁》전략개발과 첨단무기개발을 위한 연구에 30억US\$를 할당하고 그중 15억US\$를 경량화된 무인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 《한국형》전투기 등의 개발에 지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모든것이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

짜이 없다고 조소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비박계가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박근혜세력을 운운하는것은 당면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버리는 하나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자유한국당》내의 친박계는 김부성을 비롯한 비박계가 보수세력의 기초를 열어놓은 배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함께 갈수 없다. 비박계가 당권을 잡으면 투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르렁대고있다. 이로부터 비박계는 박근혜탄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대통합》은 물론 당내부화합도 실현하기 힘들다는데로 하며 박근혜석방문제를 내세우고 친박계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데 급급하고있는것이다.

새 정치, 새생활을 지향하는 민심에 도전하여 과거의 암흑시대를 되살릴 개꿈만 꾸는 악의 무리들을 용납한다면 그로 하여 차레지는 후과는 엄중하다.

현실은 민족반역과 페륜패적으로 악명높은 박근혜나 김구권을 살려보려고 지랄을 부리는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다 같고같은 력사의 죄인들이며 한사바에 매장해버려야 할 형적무리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미친게는 죽을 때까지도 남을 물어메치기 위해 발악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벌리는 추태가 죽어가면서도 남을 몰랐다고 발광하는 미친개무리들을 방불케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계파싸움으로 망해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저들의 제집권을 실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적인 민주개혁세력의 《대선》후보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보수세력들의 목표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과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리재명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남조선당국자의 외국행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실무분야의 합의를 따라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군사분계선지대에서의 초소철수상태를 돌아본것을 두고 《대통령》행세를 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경기도지사의 친형정신병원장 제임원후, 검사사경의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개발거짓의후 등 제로 확인되지

많은 문제들을 사실편을 불구어가면서 그의 도지사직사퇴를 강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친인척 부정부패를 서울시 시장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한다. 청년일자리를 도적질하는 장본인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서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더불어 민주당이 리재명을 출당시켜야 한다. 박원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대를 돌구면서 집권여당과 그들사이에서 쟁기를 치고 알뜰을 조성하기 위한 비열한 모략소동에도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벌리는 이러한 광대극에는 더러운 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잔과와 함께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는련분화해, 통일분위기를 가로막아보려는 어리석은 흉심도 깃들여있다. 민족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대법한 결단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올해에 조선반도에서는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 북남사이에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일련의 성과들도 거두었다.

날로 높아가는 련분화해분위기에 맞게 남조선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서울시가 얼마전 남북협력추진단을 정식내우고 남북협력예산을 크게 늘이기로 하고 경기도가 북남경제협력에 담당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를 내운것 등이 대표적일례이다.

북신과 대결의 얼음장을 녹이며 불어오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따뜻한 기운이 동족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데서 살길을 찾아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안겨준것은 물론이다. 이로부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계파목은 《중복》, 《안보》라명만 읊어대며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는 서울시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매장하여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민심의 련분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

용용함의와 같이 근거도 미약한 이리저리한 의혹들로 경기도지사를 기소하자 썩대우에 오른 민중이만 기고 만장하여 《한눈만 팬다》, 《틀개정신》, 《다음차레는 박원순》을 운운하며 서울시 시장을 물어메쳐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오강부정으로 물을 마셔대는것도 서슴지 않는 치사하고 비열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제1야당》이라고 떠들며 정치를 문하고있는것자체가 남조선사람들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지난 남조선의 력사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날로 무모해지고 도발적인 모략소동을 방관시한다면 민주개혁세력이 사불오를되고 대중투쟁의 전취물을 찬탈당하는 비극적결과가 차레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의 사태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초분투쟁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쇼탄압에 광분해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한시바빠 매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용철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서울구치소에 갈려 재판 받고있는 박근혜의 석방에 대해 떠들어대고있어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김부성, 라정원을 비롯한 비박계파들은 박근혜에게 중형을 선고한것은 잘못되었다. 기소가 끝난것마다 증거인멸여지가 없는것만큼 구공인 박근혜를 석방시킨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인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법석대며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여기에 일부 친박근혜파

가 맞장구를 치며 《박근혜, 리명박분구속재판추진결의》이라는것을 고안해내고 여기에 손을 들어 찬성하였었다. 그러던자들이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위해 제손으로

작이 없다고 조소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비박계가 《보수대통합》의 미명하에 박근혜세력을 운운하는것은 당면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버리는 하나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친게는 죽을 때까지도 남을 물어메치기 위해 발악한다.

많은 문제들을 사실편을 불구어가면서 그의 도지사직사퇴를 강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친인척 부정부패를 서울시 시장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한다. 청년일자리를 도적질하는 장본인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서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있다.

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일련의 성과들도 거두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오강부정으로 물을 마셔대는것도 서슴지 않는 치사하고 비열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제1야당》이라고 떠들며 정치를 문하고있는것자체가 남조선사람들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의 사태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초분투쟁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쇼탄압에 광분해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한시바빠 매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장했던 산송장까지 파헤쳐 썩먹는 추태를 부리고있으니 눈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라 해야 할것이다.

김구권으로 다 죽게 된 박근혜의 석방문제를 저저마다 들고나오는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물골은 신통히도 썩은 고기를 놓고 서로 물고뜯는 굶주린 야수무리를 방불케 하고있다.

박근혜의 석방문제를 관련된 하여 남조선의 정세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김부성을 비롯한 비박계의 박근혜석방추진 결구 당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다. 박근혜석방과 당권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내부가 더욱 복잡해질것이다. 박근혜와 같은 감옥귀신을 《보수대통합》과 단련장악이라는 정치적야욕 실현에 보물단지처럼 썩먹지 않으면 안되게 된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가련하기

본사기자 안권일

미친게는 죽을 때까지도 남을 물어메치기 위해 발악한다.

많은 문제들을 사실편을 불구어가면서 그의 도지사직사퇴를 강박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친인척 부정부패를 서울시 시장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한다. 청년일자리를 도적질하는 장본인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서 비난여론을 조성하고있다.

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일련의 성과들도 거두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오강부정으로 물을 마셔대는것도 서슴지 않는 치사하고 비열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제1야당》이라고 떠들며 정치를 문하고있는것자체가 남조선사람들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승리 떨친 자랑찬 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년경축 평양시군중시위



자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



우리 식의 80hp트랙도르 《전리마-804》호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재화대상 준공식 진행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보다 더 좋아질 데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온 나라가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때로부터 1년이 되어온다. 이해에도 이 행성의 도처에서는 반정부집회와 시위, 전쟁과 내란, 소요 등으로 하여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일심단결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사소한 동요도 없었고 최대의 정치적인정속에서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훌륭한 이해는 어떤 해였고 이 나날 사람들이 철의 진리로 더 깊이 새겨안은것은 무엇이였는가.

불패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과시한 대정치축전

올해는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국력, 위상이 최대로 떨쳐지고있는 속에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돌을 성대히 기념한 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이었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는 온 나라 인민이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며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자랑스러운 로정을 걸어온데 대한 빛나는 총화였으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 이 일떠세울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축전이었다.

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공화국인민과 경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강군의 위용을 떨치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열병대오와 평양시민들의 장엄한 군중시위를 보면서 세계는 조선이아말로 령도자와 인

민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남김없이 과시한것으로 하여 인류예술사에 기록될 대경작품으로 되었다. 하기에 공연을 본 많은 외국인들도 《주체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 《이렇듯 규모가 큰 예술작품을 수많은 출연자들이 하나같이 보조를 맞추며 제인형상으로 완벽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이런 예술작품이 있다는것 자체가 인간세계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며 저마다 찬탄을 터쳤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도전을 막고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램바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가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여 세기의 기적과 변혁들이 창조되고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주재 107(2018)년은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한 보람찬 한해였다. 올해에도 공화국이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경제체제와 봉쇄의 고베를 더 바싹 조이면서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자기 힘을 믿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아 갔다. 이 나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

려서거나 개선되었다. 이 시각에도 백두산아래 첫뿔내인 삼지연군을 인민의 리상향, 산간문화도시의 전향으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 원산갈매이안관광지가 시시각각 자기의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고있다. 과학기술과 교육부

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이런 예술작품이 있다는것 자체가 인간세계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며 저마다 찬탄을 터쳤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도전을 막고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램바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가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여 세기의 기적과 변혁들이 창조되고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창조대전으로

리고 금성트랙도르공장이 올해 트랙도르생산목표를 수행하였으며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공장용 지시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하고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석전민들의 날바다우에 해상철길다리가 훌륭히 일떠서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현생선체고기배를 무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의주화장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아 갔다. 이 나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

려서거나 개선되었다. 이 시각에도 백두산아래 첫뿔내인 삼지연군을 인민의 리상향, 산간문화도시의 전향으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 원산갈매이안관광지가 시시각각 자기의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고있다. 과학기술과 교육부

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이런 예술작품이 있다는것 자체가 인간세계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며 저마다 찬탄을 터쳤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도전을 막고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램바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가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여 세기의 기적과 변혁들이 창조되고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창조대전으로

리고 금성트랙도르공장이 올해 트랙도르생산목표를 수행하였으며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공장용 지시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하고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석전민들의 날바다우에 해상철길다리가 훌륭히 일떠서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현생선체고기배를 무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의주화장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아 갔다. 이 나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

려서거나 개선되었다. 이 시각에도 백두산아래 첫뿔내인 삼지연군을 인민의 리상향, 산간문화도시의 전향으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 원산갈매이안관광지가 시시각각 자기의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고있다. 과학기술과 교육부

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이런 예술작품이 있다는것 자체가 인간세계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며 저마다 찬탄을 터쳤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도전을 막고 사회주의 최후승리의 램바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령도자가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여 세기의 기적과 변혁들이 창조되고 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창조대전으로

리고 금성트랙도르공장이 올해 트랙도르생산목표를 수행하였으며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공장용 지시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하고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석전민들의 날바다우에 해상철길다리가 훌륭히 일떠서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현생선체고기배를 무어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의주화장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아 갔다. 이 나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에 물고기가 넘쳐난다.



완공된 고암-담춘철길

얼마전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온 나라에 소문난 은룡광산에 대한 취재의 길에 올랐던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광산이 놀라운 생산성을 이룩하고있는 비결에 대해 묻는 우리들 그곳 일군은 청년광부의 속도판으로 이끌었다.

《새로운 체굴장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대장 지경남동무를 비롯한 김혁청년동맹대원들 하루 계획 넘쳐 수행!》이라는 글발을 본 우리는 혁신의 주인 광물들을 만나보고자 체굴장에 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청년동맹대원들은 하나같이 활기차고 망만에 넘친 모습들이었다.

《우리야 청년들이 아닙니까. 가슴속에 끓여넘치는 피를 조국을 위해 바치는 시절에 뭐 그쯤한 일을 두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조국과 인민이 안전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린 힘든 줄 모릅시다.》 지경남대장의 씩씩한 대답을 들으며 우리는 조국과 인민의 믿음을 소중히 심장속에 안고 사는 이들의 청춘시절이 값없이 안겨왔다. 이때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한 대원이 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대장동무, 앞계선에 10m나 되는 위험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경남대장의 표정은 순간에 굳어지고 갑자기 조성된 정황앞에서 옆에 있던 동맹대원들도 놀란 모습들이었다.

《그렇다고 굴진속도를 늦출수야 없지 않소.》 비장한 어조로 입을 연 지경남대장은 폭약과 도화선을 들고 무작정 위험구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었다. 허나 그러한 지경남대장의 손에서 폭약과 도화선을 앓아취고 먼저 뛰어가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2소대장 장명일이였다.

《내 걱정은 말고 빨리 대피하오. 인차 발파를 할테니...》 둔중한 발파소리를 뒤에 울리며 장명일소대장이 은폐구간에 들어섰을 때 동맹대의 청년들은

가슴이 미어지게 그를 끌어안아 주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장명일청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였던 청년이었다.

파연 광산이 자랑하는 청년들이 달랐다. 그들의 심장속에 무엇이 있어 그리도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인지 우리는 구태여 물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조국과 인민의 사랑과 믿음,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청춘들이어서 그런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서슴없이 자신을 내대는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나고있었던것이다.

청년들을 믿어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맨앞장에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청년중시정책이 있어 이 땅에서는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령도자의 뜻과 사상과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령도자를 받드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한 공화국의 청년들이기에 오늘도 그들의 심장은 령도자와 하나의 숨결로 고통치고있으며 그것으로 위훈을 떨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청년실업률이 심각하여 남조선을 떠나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학비를 물기 위해 과외로 돈을 해야 하고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다시 이어지는 생존경쟁의 마당속에서 모태기는것이 남조선 사회에서 보게 되는 청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남조선에서 허무한 인생과 값없는 청춘을 저주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길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일 때 공화국의 청년들은 자기들을 시대의 값높은 영웅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고있는 고마운 조국과 제도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결의로 가슴깊이 고안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무릇 장애자라는 말은 이 행성에서 동등과 평민의 대명사로 알려져있다. 한것은 장애자들이 지닌 정신육체적약점으로 하여 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사회적으로 약자로 치부되기때문이다. 얼마전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장애자들이 올린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 걸음매여준 정은 고향 집트락 조국여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수많은 관람자들이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지켜보는 무대에서 시력장애자인 박진리가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조국여러라》의 선율이 울려다녔다. 자기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감정을 안고 부르는 그의 노래소리는 관람자들을 음악의 황홀한 경지와 깊은 감동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그런이 아니로. 시력장애자로서 한점의 빛도 보지 못하는 국제공훈예술가 김명숙이 가야금의

행복의 보금자리

본사기자 리철민

장애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

며 공화국에서는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조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었다. 21개줄을 자유롭게 뒀기며 노래 《노들강변》을 연주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삼륜차에 앉아 노래를 부르지만 않는다면, 지도교원의 지휘동작을 보며 춤을 추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이 장애자인줄 알겠는가.

인원종목들이 펼쳐지는 무대에서는 불구가 되어 인생의 꿈을 잃었던 자기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되찾아주고 모두가 한식출이 되어 사는 고마운 사회제도, 조국에 대한 흥미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있었다.

오늘 세계는 장애자문제에 하여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에 직면하고있다.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엔은

1992년 10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47차회의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12월 3일을 《국제장애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문을 예술인 못지않게 능란한 기악 연주술씨와 아름다운 몸동, 제인안산발로 펼쳐보는 장애자들의 공연을 보며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했다. 앞을 보지 못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삼륜차에 앉아 노래를 부르지만 않는다면, 지도교원의 지휘동작을 보며 춤을 추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이 장애자인줄 알겠는가.

인원종목들이 펼쳐지는 무대에서는 불구가 되어 인생의 꿈을 잃었던 자기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을 되찾아주고 모두가 한식출이 되어 사는 고마운 사회제도, 조국에 대한 흥미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있었다.

오늘 세계는 장애자문제에 하여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에 직면하고있다.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엔은

1992년 10월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47차회의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12월 3일을 《국제장애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본사기자 리철민

를 지니고 장애자들을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하여 적극 도와주도록 하는것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다. 공화국에서는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온갖 국가적혜택을 베풀어주고있다. 새들도 제 보금자리를 극진히 사랑하듯이 보금자리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갈망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계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땅우에서는 변도 터치고 펼쳐던 고마움의 노래, 으스스며 따듯이 품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장애자들을 보살피려고 지켜주고있다.

장애자들의 공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제일로 사랑하는

본사기자 김진혁

공화국의 사회제도아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집,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였다. 하기에 언제인가 이들의 공연을 본 영국의 한 인사는 장애자들의 공연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의 높은 연주기교와 기량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공연은 장애자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조건을 보장해주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잘 알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서방의 조선에 대한 《인권》소동은 완전히 허위날조이다라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공연은 끝났지만 관람자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념을 못하였다. 장애자들이 심장의 언어로 터치고 펼쳐던 고마움의 노래, 그리움의 춤물들이 남긴 여운이 너무 커서이다. 공연장은 따듯한 인간사회, 고마운 조국에 대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사랑의 마음이 차넘치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본사기자 리철민

본사기자 리철민



자 력 자 강 의 기 치 높 이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 진행

얼마전 평양에서는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보건부문의 주제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를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이번 전시회는 보건성과 조선후기과학사 총련맹 중앙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보건부문과 련관부문의 250여개 단위에서 출품한 3000여건의 과학연구성과품이 실물, 도해, 모형 등으로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품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의리기구들, 새롭게 개발한 의약품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단 및 치료방법전시대, 정보부문전시대, 도서 및 참고도서전시대, 위생용품 및 치과용품전시대 등으로 구성된 전시대들은 라선시 라진인민병원에서 출품한 나노은박막, 김만유병원에서 출품한 휴대용종합혈액형판정기, 보건성 고령약생산관리국에서 내놓은 수술에 의거하지 않는 치질연고를 비롯하여 치료효과가 뛰어난 의약품들과 독특한 의리기구들이 전시되었다.

라선시 라진인민병원에서

내용은 나노은박막은 눈의 감염성질환과 알레르기성질환, 비루스성질환에 대한 치료에서 종전의 치료방법보다 효과적이며 합병증과 재발이 없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원료를 리용하면서도 이미 쓰던 항생제, 항알레르기약, 항비루스약에 비해 적은 원가로 만든 나노은 박막은 실용성과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김해옥 라선시 라진인민병원 안과외과사도 고성 및 만성각결막염과 백막증을 비롯한 각종 눈병, 수술후 상처치리에 리용하기 위하여 이 약을 연구하였다고 하면서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효능높고 안전한 약품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자력갱생의 가치를 들고 나아가는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치료효과 뚜렷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의약품들과 성능높은 의리기구들을 생산 보장하고있는 보건부문의 의료인물들과 연구자들의 일본새를 느낄수 있었다.

전시회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출품한 자동인공호흡기와 조산아보육기, 안과수술현미경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형과 성능은 물론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제작된 안과수술현미경만 놓고 보아도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보건기관에서 사용해본 결과 다른 나라의 의리기구들보다 우월하다는것이 증명되었다고 한다.

또한 국내의 자재와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한것으로 하여 그 원가를 현저히 낮추고 경제효과도 크다고 개발자들은 말하였다.

수입산 의리기구들에 비해

여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의리기구들은 보건부문에서 환자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있으며 나라살림살이에도 많은 보탬을 주고있다.

안과수술현미경을 출품한 홍명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은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의리기구들은 우수하고 성능높은 의리기구들을 더 많이 창안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는 애국의 마음이 깃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여 보건부문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8》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날이 발전하고있는 보건부문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공화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먼거리의료봉사활동

대설과 동지는 24절기 가운데서 12월에 드는 절기들이다.

대설은 한해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7일이나 8일에 든다.

에로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그해 겨울은 푸근할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추운 겨울이지만 농기구를 만들거나 수리하고 거름모기를 진행하는 등 다음해 농사차비를 착실하게 하였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것을 일러오는 말로서 양

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동지날에는 한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지는데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12월의 절기와 민속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는데 나이를 하루라도 먼저 먹고 빨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애동지를 특별히 좋아하였다고 한다.

동지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폭 삶은 팔에 흰쌀과

물을 두고 쑨 동지죽(동지팔죽)을 들수 있다.

동지죽에는 반드시 수수 또는 찰쌀가루 등을 가지고 크기는 새알만 하고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오그람)을 넣곤 하였는데 북쪽지방에서는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것도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다.

12월의 절기들에 즐겨 진행한 민속놀이들 가운데는 눈싸움놀이, 철교놀이, 장치기 등이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12월절기의 계절적 특성에 맞는 근면하면서 다양한 노동생활풍습과 생활습관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본사기자

있는데 큰것이 차레지는 아이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것도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다.

12월의 절기들에 즐겨 진행한 민속놀이들 가운데는 눈싸움놀이, 철교놀이, 장치기 등이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12월절기의 계절적 특성에 맞는 근면하면서 다양한 노동생활풍습과 생활습관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본사기자

평양의 련광정앞에는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백선행 기념관이 있다. 그앞에는 백선행의 반신상이 있는데 그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근면과 검박, 절약으로 마련한 거금을 제 민족, 제 나라를 위하는 신한 일에 고스란히 바치어 인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애국적녀인》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백선행 기념관앞에는 백선행기념비가 있다.

백선행은 1848년 평양부 박구리(오늘의 평양시 중구역)에서 백지용의 딸딸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과 모진 인종고초를 겪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7살에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살림편이 어려운 안씨집안의 안재황에게 시집을 갔으나 얼마 안있어 남편을 잃고 16살에 청춘과부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백과부로 불리우게 되었다.

원래 그에게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채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악한 노력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갔다. 백선행은 20대의 한창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이나 치장에는 관심이 없으며 수수하게 생활하였으나 나날이나 명절놀이에도 가본적이 없었다. 그는 한푼 두푼 돈을 모아 수십년만에 얼마간의 모치돈을 저축할수 있었지만 향락에는 돈을 쓰지 않았다.

그가 평안남도일대의 갑부로 된것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강동군 만달면 송호리(당시)의 돌막산을 평당 30전이라는 험값으로 사두었다가 일본자본가 오노다에게 평당 30원이라는 100배의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것이 계기로 되었다. 당시 매국문서 환장으로 나라를 일제에게 팔아넘긴 메

그가 평안남도일대의 갑부로 된것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강동군 만달면 송호리(당시)의 돌막산을 평당 30전이라는 험값으로 사두었다가 일본자본가 오노다에게 평당 30원이라는 100배의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것이 계기로 되었다. 당시 매국문서 환장으로 나라를 일제에게 팔아넘긴 메

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기때문이다.

백선행이 처음으로 자신사업을 한것은 대동군 풍산현(현재 만경대구역 풍산동) 객산리에 있는 《술피다리》를 새로 부설한것이였다. 그는 큰돈이 나면 사람들이 허술한 나무다리로 건너다니며 불편해하는것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여 돌다리를 건설하였

다. 1914년에 다리가 준공되자 사람들은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백선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리를 《백선교》라고 하였다.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 기여는 백선행기념관에도 어려웠다.

당시 평양의 신시가지의 부림공회당의 사용권이 일본인들에게만 있고 조선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된 백선행은 분개한 나머지 유지들과 함께 조선사람들을 위한 공회당건설을 받기한데 이어 풍공사부담을 혼자 걸머지고 수만원에 달하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련광정앞의 3층짜리 석조건물인 공회당(오늘의 백선행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백선행은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였는데 평양의 광성학교, 창덕학교, 송의녀학교와 같은 학교들에서는 그가 기증한 수십정보의 토지와 거액의 돈을 밀친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도 백선행의 덕이 미친 창덕학교에서 그 덕행의 일부를 받아안은셈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이렇듯 백선행은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기에 자기가 평생을 두고 모은 거액의 돈을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회사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는 자신사업으로 표창을 받았고 너스레를 떨며 총독부 고관이 평양에 와서 면회를 청하였을 때에도 단호히 거절하였던것이다.

백선행은 1933년 85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 녀성으로서의 처음으로 사회장이 진행되었으며 그의 장례행렬에는 남녀노소가 10리길에 늘어섰다고 한다.

백선행의 덕행은 자기 개인을 위해 바친 생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생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전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평양의 애국적녀인 백선행

건강식품 - 호박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리용해온 호박에는 많은 량의 펙틴이 들어있다. 펙틴과 녹말류의 음식물을 섞어먹으면 위내용물의 점도를 높여주고 음식물의 소화속도를 조절하며 탄수화물의 흡수를 더디게 한다.

또한 호박은 위안에서의 음식물의 배출을 느리게 하고 식사후 혈당의 상승을 조절한다. 따라서 당뇨병환자가 호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호박즙은 신장과 방광에 생긴 돌을 녹여내며 전위선과 간장에 염증이 있는것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호박에는 비타민C와 포도당이, 늙은 호박에는 비타민A와 당류, 녹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박에 들어있는 일부 효소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며 고혈압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한다.

호박을 가루로 만들어 쓰면 식용 및 약용가치가 더 높아진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잘 여문 호박을 플라서 깨끗이 씻은 다음 꼭지를 따고 껍질을 벗겨 얇게 썰어서 맑은 물에 담근다. 그리고 1시간정도 지난 후에 건져서 말리워 가루내어 그대로 혹은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다.

본사기자

로화방지에 특효있는 손목돌리기운동

사람의 손과 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손목돌리기는 전신혈을 움직이는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손목돌리기를 한 후와 돌리기 전의 상태를 분석한데 의하면 인체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인 엔도르핀이 손목돌리기를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손목돌리기를 진행한 후에는 이 물질의 분량이 나타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편안한 기분속에 시 손목을 돌리면 지고 자살신경을 안정시킨다.

손목돌리기를 한 후와 돌리기 전의 상태를 분석한데 의하면 인체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인 엔도르핀이 손목돌리기를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손목돌리기를 진행한 후에는 이 물질의 분량이 나타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사화

동래성부인 (1)

글 리 빈, 그림 리 성 일

임진년(1592년) 4월 열사 흉년(음력) 한났었다.

동래성과수들은 부산진이 있는 먼 서남쪽에서 하늘을 찌를듯 솟구쳐오르는 봉수대의 연기를 발견하였다.

화닥닥 놀란 그들은 부리나케 동래부사 송상현을 찾아가 정황을 고하였다.

《그 짐승들이 끝내 란을 일으키고야말았구나!》

부름꾼 눈에 푸른 불이 이글거리는 부사는 씩씩한듯 부른것이었다. 부산진봉화가 울랐다는 소식은 삼시에 바람처럼 짝 퍼졌다.

성은 싸움차비로 들끓었다.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동래성으로 한 파발이 달려들어왔다. 기마수가 어찌나 되게 때려몰았는지 땀으로 미역을 감은 말은 푸들푸들 떨리는 입에 우구구 거품을 흘리는 한가득 물고있었다. 부산진사 정발이 띄운 파발은 왜적들을 가득가득 태운 수백척의 배들이 부산알바다를 짝 메었다는 급보를 송상현에게 전하였다.

이날 해질무렵이었다.

성안의 싸움태세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가능한 대책을 세우고난 송상현은 장대로 돌아오던 길에 잠깐 집에 들렀었다.

마당에서는 안해 금섬이 화를 만들고있었는데 어찌나 일에 정신을 팔았던지 울대

문안에 들어서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의 앞에는 지붕에서 벗겨낸 조질이 영마름들이 무뚝히 쌓였다. 이제 싸움이 불으면 조질왜자루들마다 불덩어리가 되어 원수들의 머리에 쏟아져내릴것이다.

(저 사람이 지금은 비록 조질이영으로 화를 매고있지만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군사들 못지 않게 왜적과 싸울데지.)

안해를 바라보는 송상현의 가슴은 뜨거웠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가 곁에 있으면 큰 힘이 될것이었다. 결혼이래 이때껏 자신과 한몸이 되어 고락을 같이해온 안해이다. 하여 함께 싸우다 함께 죽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송상현은 안해결정으로 가갔다.

《여보, 일손을 떼고 떠날 마련을 보오 내 벌써 온다는게 너무도 경황이 없어 이제야 겨우 틈을 쏘소. 늦었소 서두르오.》

《...》

《오늘 밤중이든 매일 새벽이든 아버님을 모시고 빨리 정성(서술)으로 가오!》

송상현은 조금더 다그쳤으나 고개를 숙인 안해는 굳어진채 대답을 못하였다.

차마 남편의 분부에 용할 수가 없었던것이다. 남편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하였고 그대로 놀리었자니

그러지도 못할 딱한 처지였기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예견을 하고 만가지로 속을 썩이면서도 이렇다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던차에 정작 부닥치고보니 아연하였다.

송상현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알았던지 아니면 대답을 들을 겨를조차 아까웠는지 《급하오, 한결음이라도 빨리!》하고 다그치고는 발길을 돌리었다.

그바람에 와팔 놀란 금섬은 《쫄, 가만!》하며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아나섰다.

《쫄 생각해보셨어요.》

송상현은 성을 뱉었다.

《당장 짐승무리가 들이닥치겠는데 생각을? 당신이 망설이는 까닭을 내 죽히 짐작하고있지만 안되오. 부산이 코앞이요. 놈들이 성을 에워싸면 그대나 다!》

《...》

모든 녀인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분부를 법으로 알고 살아온 금섬으로서 남편의 뜻을 거스르기는 이만저만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열결에 대꾸가 나갔다.

《그대도...》

《쫄소. 떠나기가 험할수 없지. 좀 있다가 내 다시 오겠소. 아니, 순명수를 보내지.》

리해가 깊은 남편이었다. 그는 안해로 들어가 부친을

비용고 총총히 돌아갔다. 금섬은 하도 마음이 무거워 다시 일손을 잡을수가 없었다.

지금 가정에서는 나더러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를 떠나라고 한다. 그의 요구에는 조금도 텃할것이 없다.

그것은 자식의 응당만 하리라 아닌가. 하지만 이제 여기 동래성의 우리 사람들은 목숨을 내대고 원수들과 싸울터인데 그들을 버리고 어떻게 나 혼자 빠져나간단 말인가. 그대들은 다 죽고 나 하나 목숨을 건진다면 하늘이 무서워 어떻게 산단 말인가. 더구나 내가 이 동

백한 장대에서 수문장들과 마주앉아 무슨 격렬한 논의를 벌리고있었다. 분위기가 사뭇 엄연하였다. 선뜻 나설 수가 없어 당하에 선채 바재이고있는 그에게 송상현이 제먼저 관심을 돌렸다.

《떠날 차비가 끝났는지?》

《...》

금섬은 결심이 굳었지만 얼른 대답을 할수 없었다.

《내 이제 아버님을 뵈옵고 성밖까지 보내주십시오. 남편은 역시 서두르고있었다.

순간 금섬은 자기가 이제 더는 예누릴 겨를도, 물러



래성 성장의 안해인데 칠성관에 오른 성의 운명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버린다면 성장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참 내인이 장부의 낮을 깎다니.

고인이 싸여 허덕이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결심을 내린 금섬은 남편을 찾아 장대로 갔다.

송상현은 여러대의 등축을

송상현은 마치 안해를 처음 보는 사람인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떠나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요. 사정이 절박하니 모두가 떠난단 말이요. 모두가 안되오!》

송상현은 안해의 두어깨를 와락 움켜잡아 둘러세웠다. 금섬은 그의 무릎아래 무너지듯 었드렸다.

《한각 아내자의 몸으로 장부의 뜻을 어기지 죽을죄에 드는줄 제 어찌 모르겠사오이까. 하오나 저의 떠남이 체손으로 자기 사람들을 오랑캐놈들의 칼에 내던지는 행위와 같사오네 어찌 차마 그러하오리까!》

《...》

《하거니와 에로부터 부부는 일제라 일러왔거늘 저를 떠나보내어 몸 절반을 떼어 놓으시던 군자의 취하신 몸 어찌 보전하오리까?》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간곡하고도 결절하였다. 이제 송상현이 다시한번 더 《안되오.》하고 막는다면 금섬은 그의 두다리를 부여안고 몸부림칠지도 몰랐다.

송상현은 얼음이 돌처럼 굳어져 안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과연 평생도록 내 말이면 소금심도 물에서 갈라낸 순순히 끝짓 같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마침도 그의 눈길은 이렇게 묻는듯싶었다.

그들부부가 주고받는 말을 장대에 듣고있는 여러 부하들은 숨을 죽이고 제 나름의 깊은 생각에 잠겨 그린듯 움직이지를 몰랐다.

《?》

손상현은 마치 안해를 처음 보는 사람인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떠나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요. 사정이 절박하니 모두가 떠난단 말이요. 모두가 안되오!》

송상현은 안해의 두어깨를 와락 움켜잡아 둘러세웠다. 금섬은 그의 무릎아래 무너지듯 었드렸다.

《한각 아내자의 몸으로 장부의 뜻을 어기지 죽을죄에 드는줄 제 어찌 모르겠사오이까. 하오나 저의 떠남이 체손으로 자기 사람들을 오랑캐놈들의 칼에 내던지는 행위와 같사오네 어찌 차마 그러하오리까!》

《...》

《하거니와 에로부터 부부는 일제라 일러왔거늘 저를 떠나보내어 몸 절반을 떼어 놓으시던 군자의 취하신 몸 어찌 보전하오리까?》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간곡하고도 결절하였다. 이제 송상현이 다시한번 더 《안되오.》하고 막는다면 금섬은 그의 두다리를 부여안고 몸부림칠지도 몰랐다.

송상현은 얼음이 돌처럼 굳어져 안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과연 평생도록 내 말이면 소금심도 물에서 갈라낸 순순히 끝짓 같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마침도 그의 눈길은 이렇게 묻는듯싶었다.

그들부부가 주고받는 말을 장대에 듣고있는 여러 부하들은 숨을 죽이고 제 나름의 깊은 생각에 잠겨 그린듯 움직이지를 몰랐다.

《?》

건강에 좋은 옛

옛은 알록 또는 감자농마를 길급이나 산으로 당화시킨 다음 졸여서 굳힌 당이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달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 옛을 생활에 널리 리용하여 왔다.

옛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찹쌀엿, 흰쌀엿, 수수엿, 강병엿, 감자엿, 고구마엿 등으로, 졸임정도에 따라 물엿(조청, 황금태)과 강엿으로 나눈다. 그리고 색과 모양에 따라 흰엿, 검은엿, 만엿, 가락엿, 알엿으로, 섞는 감에 따라 콩엿, 밤엿, 호두엿, 잣엿, 약엿 등으로 구분한다.

조선엿은 독특한 맛과 우수한 영양생리학적특성으로

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엿은 길급당함량이 높고 단백질, 기름질, 광물질과 비라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길급당은 인슐린의 작용이 없이도 사람의 몸세포만으로 쉽게 들어갈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길급당이 풍부한 옛은 당뇨병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음식으로 된다.

또한 엿을 많이 먹으면 장내미생물구성상태를 좋게 할수 있다.

그리고 옛은 에네르기소비가 심하거나 육체적부담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에네르기원천으로 된다.

본사기자

유모아

네 형제의 돌아르기

한결같이 교활한 네 형제가 있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담장을 쌓을 돌들을 나랏이라고 네 형제에게 분부하였다.

그들은 저마끔 작은 돌을 골라서 날라왔다. 큰 돌은 서로 밀면서 누구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중에 제일 큰 돌이 하나 남았다. 형제들은 그 돌을 함께 들어오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모두 힘든 시늉을 하면서 《염처》하고 돌을 들어올렸다. 그 순간 맏이가

생각하였다.

(작은 돌을 나를 때 내가 담장을 쌓을 돌들을 나랏이라고 네 형제에게 분부하였다.)

둘째와 셋째도 (넷이서 돌을 함께 드니 내가 힘을 쓰느니 안쓰느니 알게 뭐야.) 하고 생각하면서 손뼉을 놓았다.

넷째는 형들보다 한수 더 써서 아예 힘을 쓰지 않았다. 순간 큰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들의 발등을 찍었다.